

# TOURISM SCOPE

E-book  
Volume 31  
2014

The Official Magazine of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ISSN 1739-5089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최고의

관광 도시 네트워크인 TPO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TPO)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도시 간 네트워크로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창설된 국제적 관광기구입니다.

TPO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회원 도시 간 관광산업 정보

교환을 비롯해, 관광 상품 개발, 공동 마케팅 사업, 관광 분야

교육 및 인재 육성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TPO는 현재 72개 도시 정부와 37개 민간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 민간 회원은 관광산업과 관련된

협회, 연구기관, 관광지 마케팅 기관(DMO)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TPO는 아시아 · 태평양 내 도시 관광의 발전과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Contents

### 03 CULTURE & TRAVEL

15 Different Shops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 07 SPECIAL

동남아의 新허브 자카르타를 걷다

Transportation Hub in Southeast Asia

### 13 CITY THEME TOUR

슬프고 또 찬란한 호찌민의 두 얼굴

### 17 CITY THEME TOUR

경주 스탬프 투어

### 23 TREND & ANALYSIS

등산객을 유혹하는 세계의 산 6

Best Season for Climbers

### 27 TPO INTERVIEW

가오슝 관광뷰로 수촨성 국장

### 29 TPO NEWS

### 31 FESTIVAL CALENDAR

〈Tourism Scope〉 구독 신청은

TPO 공식 홈페이지([www.aptpo.org](http://www.aptpo.org))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15 Different Shops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창고로 방치돼 인적이 뜰해진 곳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청년 장사꾼들, 전통시장을 문전성시  
명소로 바꾸어놓은 젊은이들을 만났다.

100년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전주 남부시장엔 특별한 풍경이 있다.

총 10개 건물 중 유동 인구가 적어 빈 점포가 많던 6동 2층에 들어선 '청년몰' 이야기다.

청년몰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 사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창업 아이디어와 실현 가능성을 기준으로 뽑힌 입주자들에게 1년간 입차료를 지원하는 것. 1인 점포가 대부분이고, 2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의 운영자가 주를 이룬 점포는 2011년 처음 2개로 시작해 현재 32개가 됐다. 기존 전통시장에서는 보기 힘든 세계 요리 전문점과 카페, 디자인숍, 갤러리 등 다양한 가게가 들어섰다. 청년몰이 생긴 지 2년이 흐른 지금, 남부시장은 전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53 남부시장 2층 청년몰 전화 070-8801-8218 운영시간 점포별 상이, 월요일 전체 휴무  
페이스북 [www.facebook.com/2Fchungnyunmall](http://www.facebook.com/2Fchungnyunmall)



## 천연 재료로 만든 전통차 카페 차와 Cafe CHA-WA

직접 만든 전통차와 디저트, 커피를 선보이는 건강한 카페. 청년몰 초창기 멤버인 주인장 임영균 씨는 오미자차 단일 품목으로 시작해 2년 넘게 한자리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시장을 찾는 사람이라면 젊은이에서 장년층까지 모두가 편하게 들러 차를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 처음 손님이 없던 시기에는 하루하루 인테리어를 보강하고 메뉴를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보니 어느덧 가게가 어엿한 형식을 갖췄고, 석류·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주 재료는 직접 만들 수 있을 만큼 숨씨도 늘었다. 전통차 말고도 과일 스무디, 빙수, 토스트 등 메뉴가 다양하다. 여름엔 효소로 만든 시원한 차, 겨울엔 달여 만든 따뜻한 차를 추천한다. 더운 여름엔 견과류와 갖가지 재료를 듬뿍 넣어 만든 건강빙수가 인기. 현미 뻥튀기를 넣어 입안에서 특특 터지는 식감이 일품이다. 여기에 고소한 콩가루와 팥, 대추, 아몬드를 아낌없이 뿌리고, 찹쌀떡과 잣을 얹어 맛도 끝내준다.

전화 010-8754-4511 운영시간  
화~토요일 11:00~22:00, 일요일 11:00~21:00, 월요일 휴무 가격 건강빙수 9500원, 레몬오미자차 4000원



## 세계를 무대로 달리는 상인 소소한 무역상

가게 안팎으로 양증맞은 소품들이 빈틈없이 채워진 가게. 이곳의 물건은 모두 해외에서 건너온 것들이다. 주인장 박종현 씨는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외국에 나가는데, 일본 출장이 가장 잦다.

매장 인테리어나 아이디어를 일본의 숍들에서 얻는 편이다. 일본에서 도매상 라이선스까지 취득, 좋은 가격에 물건을 들여오고 있다. 현지나 공항 면세점보다 20~30% 저렴한 제품을 보물찾기하듯 '득템' 할 수 있는 게 매력. 세계 곳곳에서 발품 팔아 사 모은 물건을 손님들이 좋아하고, 재미있어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보람된 순간이다. 좁은 공간의 단점을 보완, 안과 밖의 구분 없이 인테리어한 것이 돋보인다. 주인장이 직접 만든 사진엽서를 구입, 가게 밖 테이블에서 내용을 예쁘게 적어 우표값만 내면 한 달에 한 번 일괄 발송해준다.

전화 010-9443-8176 운영시간 09:00~20:00, 월요일 휴무 가격 사진엽서 1000원, 양우산 2만 9000원 홈페이지 [www.i-re.co.kr](http://www.i-re.co.kr)



차와

소소한 무역상





## 업사이클링 디자인의 매력에 빠지다 리본 RE:BORN

지역 문화 행사와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보따리단'의 빈티지 에코 편집숍. 학창 시절부터 전주대학교 앞에서 운영해온 플리마켓이 인기를 끌면서 청년몰에 직접 매장을 열게 되었다. 액세서리, 컵, 그릇 등 재활용품을 새롭게 디자인해 가치를 높인 업사이클링 제품들과 빈티지 의류를 판매한다. 단추로 만든 귀걸이와 반지, 병뚜껑을 소재로 한 냉장고 자석은 주



인장이 직접 만든 것들.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에서 만든

제품도 위탁 판매한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예 심리 치료 과정에서 만든 꽃 작품을 모티프로 패션, 디자인 상품을 제작하는 마리몬드(Mary Mond)의 스마트폰 케이스 제품이 대표적이다. 보따리단은 8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풍남문 광장에서 20여 판매팀과 함께 '서머나잇마켓'을 연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연도 선보인다.

전화 070-8881-3494 운영시간 10:30~20:00, 월요일 휴무(방학 시즌 11:00~21:00, 휴일 없음) 가격 빈티지 의류 2만~4만 원, 병뚜껑 자석 1000원, 단추 귀걸이 3000원~, 코바늘손뜨개 레이스 1만 5000원, 마리몬드 스마트폰 케이스 2만 3000원 [블로그](#) blog.naver.com/boddaridan



리본

힐링산하

청춘식당



## 홍채분석·수기치료로 건강 관리 힐링산하

여행으로 지친 몸의 피로를 풀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싶다면 이곳이 정답이다. 대학에서 대체 의학을 공부한 김산하 치료사는 출업 후 한방병원에서 수기치료사로 근무하다 올 7월 청년몰에 입주했다. 치료를 위해 찾아오는 단골 지역 주민은 물론, 여행 중에 들르는 손님도 제법 많다. 기계를 이용한 간단한 발마사지부터 특정 부위의 수기치료, 홍채분석학을 이용한 건강 진단이 주요 프로그램. 특히 '홍채분석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사람마다 다른 홍채의 생김새로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헝가리의 이그나초 본 페크 제리 박사가 처음 시작해 미국에선 100년 넘는 역사를 지닌 학문이다. 특수 카메라로 홍채를 촬영해 건강 상태를 진단한 후 체질에 따라 걸리기 쉬운 질병의 예방법이나 쇠약해진 부위를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운영시간 10:00~20:00 가격 족욕+아로마오일수(25~30분 소요) 1만 원, 수기치료(15~20분 소요, 2명 동시 가능) 1만 원, 홍채 진단 1만 원 [블로그](#) blog.naver.com/sanha\_nation [페이스북](#) www.facebook.com/healingsanha



## 국민 간식 떡볶이로 파워업 청춘식당

간판에 적힌 '니들은 참말로 열심이다'라는 문구에 이끌려 들어간 곳. 나이 불문하고 '청춘'을 사는 사람으면 누구나 이곳의 손님이 된다. 직장 생활을 하던 주인장 김현상 씨는 하고 싶은 일보다 부수적인 일들에 너무 많은 품이 드는 현실을 벗어던지고 이곳에 왔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재밌는 일을 벌이고 싶었다. 도매상이 대부분인 남부시장엔 분식집이 드물다는 점에 착안해 떡볶이와 튀김을 파는 식당을 열었다. 얼마 전 시장 안에 새로운 떡볶이집이 문을 열기 전까지 청춘몰에서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했다. '낮술 환영'이라고 써 붙였듯 튀김을 아주 삼아 낮에도 시원한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크림소스를 넣어 고소하고 부드러운 풍미를 살린 하얀 떡볶이다.



운영시간 화~토 12:00~22:00, 일요일 12:00~16:00, 월요일 휴무 가격 모둠 튀김 소/대 각각 4500원/8500원, 빨간 떡볶이 4000원, 하얀 떡볶이 6000원, 병맥주 3000원 [페이스북](#) www.facebook.com/cheongchunsigdang

##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전통 디자인 새새미

프랑스에서 조형예술을 전공한 이혜지 작가가 전통 디자인 소품을 만들게 된 사연. 학창 시절 배낭여행으로 버스와 기차를 타고 유럽을 돌아다닐 때의 일이다. 여러 기념품 숍에서 사 모은 물건을 보니 하나하나에 지역의 문화와 전통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한국에 돌아와 젊은 시선으로 전통을 재해석해보기로 한 건 그 때문이다.



일상 소품을 담아 몸에 지니고 다니던 보자기나 주머니에 트렌디한 패턴의 디자인을 적용, 여자라면 누구나 소장하고 싶어 하는

‘복주머니’를 만들었다. 이것은 금세 새새미의 대표작이 됐다. 파우치나 지갑처럼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장점. 직접 그린 풍남문 그림엽서도 인기다. 폐목재를 활용한 미니 자석 간판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운영시간 11:00~20:00, 월요일 휴무 가격 복주머니 8000원/9900원, 미니 자석 간판 5000원 홈페이지 [www.saesaemi.com](http://www.saesaemi.com)



새새미



두린캔들

뜻밖의 조작가

## 향이 좋은 수제 소이캔들 두린캔들

향으로 먼저 기억하게 되는 소이캔들 속. 가게 이름은 주인장의 이름과 똑같게 지었다. 신기하게도 이름에 콩 ‘두(豆)’가 들어 있어 캔들의 주재료인 소이왁스와도 잘 맞아떨어졌던 것. 캔들에 관심이 많은 언니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호텔에서 일할 당시 단례품으로 향초를 자주 접한 것이 캔들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을 오가며 전문 교육기관에서 양초공예자격증도 취득했다. 청년몰 매장은 두린캔들 1호점. 통유리창 너머로 캔들 만드는 과정을 구경하는 재미가 쓸쓸한 곳이다. 보유한 제품은 향기가 다른 캔들 8종과 아로마 디퓨저 1종. 8월부터 2~3명 정도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1DAY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전화 010-8390-1321 운영시간 11:00~20:00, 월요일 휴무 가격 티라이트 8종 개당 2500원, 캔들 4oz/6oz/7oz/9oz 각각 1만 2000원/1만 6000원/1만 8000원/2만 5000원, 아로마 디퓨저[스틱 5개 기준] 100mL 2만 5000원 홈페이지 [www.doorin.kr](http://www.doorin.kr)



## 미술 작품을 사고파는 갤러리 뜻밖의 조작가

인천 아트플랫폼 입주 작가 조해준의 독립 갤러리. 작가 본인의 작품은 물론 다른 작가들의 미술 작품도 전시, 판매하고 있다. 조해준 작가는 독일에서 공부할 당시 유명 관광지마다 자리한 상업 갤러리에서 지역 미술 상품을 활발히 사고파는 모습을 보며 한국에는 왜 그런 곳이 없을까 궁금했다고 한다. 이후 일상에서 예술을 즐기고, 작품을 판매하는 공간을 꿈꿔온 그는 지난해 고향 전주 청년몰에 지금의 갤러리를 오픈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스티브 잡스’를 소재로 한 조형 작품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벽면엔 조해준 작가가 그린 <미군과 아버지-초상 시리즈>를 비롯해 다양한 회화 작품이 걸려 있다. 가장 안쪽에 파란 캐비닛으로 분리된 작가의 은밀한 작업 공간을 훔쳐보는 재미는 덤. 독일에서 온 에코백과 수입 과자류도 판매한다.

전화 010-2603-2388 운영시간 11:00~19:00, 월요일 휴무 가격 작품당 3만~1000만 원, 독일 슈투트가르트 레알 에코백 1만 원, 주지도 작가가 디자인한 에코백 한정판 1만 5000원

동남아의 새로운 허브, 자카르타 매력 탐구

# Gateway to Southeast Asia

일찌이 자카르타는 동남아의 유럽으로 불렸다. 대항해 시대에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아 유럽 문화가 유입됐기 때문. 최근에는 마사지와 골프, 나이트라이프 문화도 다채로워져 여행자들에게도 주목받고 있다. 동남아를 거쳐 세계로 나아가는 하늘길의 새로운 허브로 급부상한 자카르타. 비즈니스 여행자들만 잠시 머물다 가는, 그저 그런 경유지의 모습은 이미 벗어버린 지 오래다.





## 자카르타 관광의 시작 메르데카 광장 Merdeka Square

독립기념탑을 중심으로 조성된 대형 광장. 독립광장으로도 불린다. 가운데 모나스를 중심으로 방사선상으로 넓게 뻗어 있는 것이 특징. 인도네시아 독립 영웅들의 동상을 비롯해 55개의 분수, 싱싱한 수풀과 잔디 공원, 자전거 도로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자카르타 시민들의 소중한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다. 광장의 평화로운 풍경은 광장 바로 밖의 꽉 막힌 도로와 대조를 이룬다. 해 질 녘 출사 장소로도 인기가 높다.

찾아가는 법 자카르타 국제공항에서 택시로 40분 소요 주소 Medan Merdeka, Jakarta Pusat 입장료 무료



## 한눈에 보는 인도네시아 국립박물관 National Museum of Indonesia

인도네시아 역사가 총망라된 곳으로 1862년에 완공됐다. 1868년 정식으로 오픈, 대규모의 인도네시아 예술품과 고고학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그중 1891년에 발견된 자바 원인의 두개골과 태국의 추라롱 코른 국왕이 선물한 청동 코끼리상이 가장 인기다. 인도네시아의 고고학과 선사학, 역사학에 관심 있다면 꼭 둘러봐야 할 필수 스폿.

찾아가는 법 메르데카 광장에서 도보 5분 주소 Jl. Medan Merdeka Barat No.12, Gambir, Jakarta Pusat 10110 전화 62-21-386-8172 운영시간 화~목요일, 일요일 08:30~14:30, 금요일 08:30~11:30, 토요일 08:30~13:30, 월요일 휴관 입장료 1만 루피아 홈페이지 [www.museumnasional.or.id](http://www.museumnasional.or.id)

## 독립의 상징 모나스 Monas

메르데카 광장 중앙에 있는 국가 독립기념관. 자카르타 관광의 핵심으로 시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을 기념해 세워졌다. 음(–)을 의미하는 정방형의 평평한 반석 위에 양(+)을 의미하는 탑을 조화롭게 세웠다. 이곳 관광의 백미는 탑 꼭대기에 있는 황금 불꽃상. 지하에는 인도네시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작은 박물관이 있고 탑의 꼭대기에는 전망대가 자리한다. 날씨가 맑으면 멀리 바다까지 볼 수 있다.

찾아가는 법 메르데카 광장 가운데 위치 주소 Jl. Silang Monas, Jakarta Pusat 전화 62-21-382-2255 운영시간 08:30~17:00 입장료 5000루피아



## 교통의 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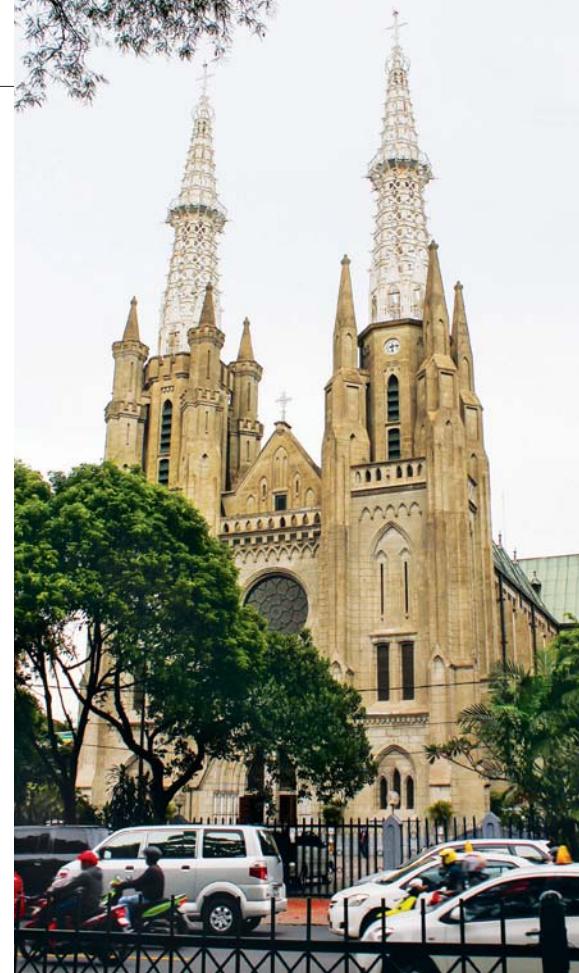
### 모누멘트 살라맛 다탕 Monument Salemet Datang

자카르타 교통의 실질적인 중심지. 흔히 모나스가 있는 메르데카 광장을 자카르타의 중심으로 꼽지만, 유동 인구와 교통량을 봤을 때 이곳이 더 중심가에 가깝다. 대규모 쇼핑몰 플라자 인도네시아와 그랜드 인도네시아, EX플라자를 비롯해 그랜드 하얏트, 만다린 오리엔탈 등의 특급 호텔이 밀집해 있다. 자카르타 각 유명 스폿으로 접근하기가 쉬워 이곳을 중심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찾아가는 법 메르데카 광장에서 도보 15분, 택시 5분



### 백색 궁전 대통령 관저 Istana President

메르데카 광장 북쪽으로 걷다보면 화려한 백색 건물과 마주하게 된다. 1942년까지 화란 총독이 사용하던 건물로 네덜란드 지배 당시에는 총독부의 궁으로 사용됐다. 현재는 국빈을 대접하는 연회장으로 주로 사용된다고. 매년 독립기념일인 8월 17일에는 이곳에서 성대한 기념식이 개최된다. 안으로 들어갈 순 없지만, 광장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흥미롭다. 밤이 되면 야경 스폰으로 화려하게 변신한다. 찾아가는 법 메르데카 광장에서 택시 5분



### 자카르타 유일의 성당

### 자카르타 가톨릭 성당 Catedral

이스티클랄 사원 바로 건너편에 자리한 성당. 자카르타에서 보기 힘든 서양식 건축양식도 볼거리지만, 무엇보다 이슬람 사원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리한 것이 더욱 흥미롭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전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타 종교를 모두 인정한다. 이슬람 국가에선 보기 어려운, 다른 종교와의 조화와 관용의 미덕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찾아가는 법 메르데카 광장에서 택시 5분



### 아시아 최대 사원

### 이스티클랄 사원 Masjid Istiqlal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이슬람 사원.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교도인 인도네시아답게 아시아권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수카르노 대통령 재임 당시인 1961년에 짓기 시작해 수하르토 대통령 시절인 1978년 완공했다.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수많은 이슬람 신도가 합동 예배를 올리는 장관을 연출한다. 찾아가는 법 메르데카 광장에서 택시 5분



### 도심 속 휴식처 수로파티 공원

Suropati Park

현지인이 사랑하는 조용한 공원으로 메르데카 광장 남쪽에 있다. 깔끔하게 손질된 꽃 정원과 시원하게 솟구치는 분수가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불드는 곳. 여행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로 무더위에 지친 심신을 달래며 잠시 쉬어가기 좋다. 인근에 아마드야니 장군 박물관도 있으니 함께 둘러보기를 추천한다.

찾아가는 법 메르데카 광장에서 택시 10분, 모노멘트 살리맛 디탕에서 택시 5분

## 인도네시아의 축소판 타만 미니 인도네시아 Taman Mini Indonesia

자카르타 남부에 자리한 민속촌. 1970년대 초반, 수하르토 대통령 부인인 이부 틴 수하르토 여사의 제안으로 건설됐다. 자카르타를 찾은 여행자라면 반드시 들러야 할 곳으로 이미 명성이 자자하다. ‘인도네시아를 짧은 시간에 보고 싶으면 이곳을 찾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볼 거리가 가득하다. 100만m<sup>2</sup>가 넘는 공간에 인도네시아 각 지방의 인종과 문화, 생활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놓았다. 공원 한가운데 자리한 대형 호수에는 인도네시아와 꼭 닮은 모양의 작은 섬이 있다.

찾아가는 법 메르데카 광장에서 택시 50분 주소 Ji Raya Pondok Gede, Jakarta 전화 62-21-8779-2078 운영시간 09:00~17:00, 월요일 휴관 입장료 1만 루피아 홈페이지 [www.tamanmini.com](http://www.tamanmini.com)



## 고즈넉한 항구 순다 켈라파 항구 Sunda Kelapa Port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 동인도회사의 물자를 나르던 옛 항구로 자카르타의 현관 역할을 했다. 방파제를 따라 2km 넘게 뻗어 있고 형형색색의 크고 작은 화물선이 정박해 있다. 대항해 시대, 이곳을 드나들던 서양 열강의 범선들을 떠올리며 잠시 사색에 잠겨보는 것도 좋다. 이국적인 항구를 배경으로 괜찮은 사진 몇 장 정도는 충분히 건질 수 있다.

찾아가는 법 메르데카 광장에서 택시 30분



## 북부 최대 테마파크 안콜 유원지 Ancol Resort

자카르타 북부에 자리한 대규모 종합 유원지. 정식 명칭은 타만 임피안 자야 안콜 (Taman Impian Jaya Ancol)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로 1967년에 완공됐다. 골프장과 놀이 기구, 요트장, 나이트클럽, 마사지실, 갤러리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특히 가족 나들이객에게 인기 있는 두니아 판타지 유원지가 이곳 관광의 백미. 주말이면 현지인 관광객만으로도 인산인해를 이룬다.

찾아가는 법 메르데카 광장에서 택시 20분 주소 Jl. Pasir Putih Raya Blok 5-Jakarta Utara 14430 입장료 2만 루피아(순수 입장에 한함) 홈페이지 [www.ancol.com](http://www.ancol.com)



### More Information



#### 알아두면 좋은 인도네시아 문화

이슬람교도가 많아 자카르타 시내 곳곳에서 무슬림의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하루 5번 울린다. 흄칫흡칫 놀랄지도 모르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로컬 식당을 찾을 경우, 꼭 수저를 함께 주문하자. 손으로 음식을 먹는 풍습 때문에 수저 없이 음식이 나오는 일이 잦다. 또 과도한 음주와 인도네시아 정치 비방은 삼가야 한다.



### 자카르타 쇼핑의 중심 플라자 인도네시아 Plaza Indonesia

동남아에서 명성이 자자한 백화점. 자카르타 시내 중심으로 통하는 모노멘트 살라맛 다탕에 자리하며 그랜드 하얏트 호텔과 같은 건물에 있다. 1층에는 루이비통과 버버리, 지미추 등의 명품 숍이 가득하고 2층부터는 의류점, 전자 제품 등 다양한 물건을 취급하는 상점이 즐비하다. EX 플라자 몰과 연결돼 있어 쇼핑의 폭이 넓은 것도 특징이다.

찾아가는 법 메르데카 광장에서 택시 5분, 모노멘트 살라맛 다탕에서 바로 주소 Jl. M.H. Thamrin Kav. 28-30 Central Jakarta 10350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plazaindonesia.com](http://www.plazaindonesia.com)

### 화려한 인테리어 퍼시픽 플레이스 Pacific Place

자카르타 시내 중심부에 자리한 최고급 쇼핑몰. 1층엔 명품 매장이 즐비하고 2층부터는 20~30대 젊은 층을 겨냥한 의류 매장이 가득하다. 벤틀리 등의 수입차 전시장과 최고급 영화관, 어린이를 위한 테마파크도 있다. 리츠 칼튼 호텔과 연결돼 있어 쇼핑과 숙박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쇼핑도 쇼핑이지만, 기막힌 인테리어를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즐겁다. 최고층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아찔할 정도의 장관이 펼쳐진다.

찾아가는 법 메르데카 광장에서 택시 15분 주소 Jl. Jend. Sudirman Kav. 52-53 Sudirman Central Business District Jakarta 12190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pacificplace.co.id](http://www.pacificplace.co.id)



### 다목적 쇼핑몰

#### 그랜드 인도네시아 Grand Indonesia

플라자 인도네시아와 도로 하나 사이에 자리한 대규모 쇼핑몰. 크게 동쪽 건물과 서쪽 건물로 나누어 있다. 주로 명품 매장이 많은 플라자 인도네시아와 달리 자라와 포에버리, H&M 같은 중저가 의류 매장이 많아 여행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인도

네시아 미술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카르타 아트 디스트릭트(Jakarta Art District)'도 눈길을 끈다.

찾아가는 법 메르데카 광장에서 택시 5분, 모노멘트 살라맛 다탕에서 바로 주소 Jl. M.H. Thamrin No. 1 Jakarta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grand-indonesia.com](http://www.grand-indonesia.com)



### 새로운 쇼핑 메카 치푸트라 월드 1 Ciputra World 1

자카르타의 새로운 상업 중심지로 주목받는 자카르타 메가 쿠닝안(Mega Kuningan) 지역에 자리한 종합 쇼핑몰. 4층과 5층에 있는 롯데 면세점을 비롯해 음식점 불고기브라더스와 스쿨푸드 등 한국 음식점이 여러 곳 있어 한국인 여행자를 위한 맞춤형 쇼핑몰처럼 느껴질 정도다. 어린이용 실내 놀이동산 '롤리팝'과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대표적 중저가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로도 눈길을 끈다.

찾아가는 법 메르데카 광장에서 택시 20분 주소 Lotte Shopping Avenue, Jl. Prof. Dr. Satrio Kav. 3-5, Jakarta Selatan 운영시간 10:00~22:00





### 시끌벅적 종합 쇼핑몰 블록 엠 스퀘어 Blok M Square

마치 우리나라 동대문종합시장을 연상케 하는 곳. 자카르타 현지인이 특히 사랑하는 종합 쇼핑몰이다.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 쏠쏠하다. 바로 옆에 파사라야 그란데(Pasaraya Grande)라는 대형 쇼핑몰이 나란히 있으니 함께 둘러보는 것도 좋다.

찾아가는 법 메르데카 광장에서 택시 30분 주소 Mal Blok-M, Jalan Melawai Raya 운영시간 10:00~22:00

### 자카르타의 압구정동 스나얀 시티 Senayan City

남부 자카르타에 자리한 대형 백화점. 최근 여행자들 사이에 핫 플레이스로 뜨고 있다. 어마어마한 규모와 화려함의 끝을 보여주는 건물 내부에는 명품 매장과 세계의 다양한 브랜드 매장이 가득하다. 또 고품격 헤어 살롱과 마사지 솔, 음식점도 다수 입점해 있다.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으로 멋진 야경 스포트를 선사한다.

찾아가는 법 메르데카 광장에서 택시 20분 주소 Jl. Asia Afrika Lot 19 Senayan, Jakarta 10270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senayancity.com](http://www.senayancity.com)



### 쇼핑과 액티비티를 한 번에

#### 폰독 인다 몰 Pondok Indah Mall

자카르타 최고의 부촌으로 알려진 폰독 인다 지역에 있는 대형 백화점. 두 동의 큰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인근에 중국인이 많이 살아서인지 내부에서 전체적으로 중국 분위기가 많이 느껴진다. 유아 놀이동산과 극장, 골프 연습장, 테니스장, 수영장 등 부대시설도 다양해 쇼핑 외에도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

찾아가는 법 메르데카 광장에서 택시 35분 주소 Jl. Metro Pondok Indah Kav. IIIIB Pondok Indah, South Jakarta 12310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pondokindahmall.co.id](http://www.pondokindahmall.co.id)



### 주상 복합 백화점

#### 타만 앙그렉 몰 Taman Anggrek Mall

센트럴 자카르타의 풀먼(Pullman) 호텔 바로 옆에 자리한 백화점. 백화점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추세에 맞춰 대형 오락실과 아이스링크, 고급 부티크 살롱, 전문 음식점 등을 갖추고 있다. 대규모의 고급 아파트 건물에 들어서 다목적 주상 복합 형태의 대표적인 건물로 손꼽히기도 한다.



찾아가는 법 메르데카 광장에서 택시 15분 주소 Jl. Letjen S. Parman Kav. 21 Slipi, West Jakarta 11470 운영시간 10:00~22:00 홈페이지 [www.taman-anggrek-mall.com](http://www.taman-anggrek-mall.com)



## 슬프고 또 찬란한 호찌민의 두 얼굴

뜨거운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프랑스풍 건물 사이로 오토바이 부대가 시끄럽게 지나간다. 한쪽에는 그런 도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이공 강이 유유히 흐르고 강을 따라 내려가면 울창한 맹그로브 숲이 펼쳐진다. 찬란한 역사가 물어나는 도시와 신비로운 대자연, 호찌민의 매력적인 두 얼굴을 만나보자.





## 베트남의 경제 심장 호찌민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인 호찌민은 베트남의 경제·문화의 중심지다. 본래 사이공(Saigon)으로 불리다 지난 1975년에 호찌민 시로 이름이 바뀌었다. 호찌민(Ho Chi Minh)은 베트남 정치가의 이름이기도 하다. 혁명운동을 지속한 베트남 독립의 영웅이며 초대 정부 주석으로 취임한 인물로 현재도 '호 아저씨'라 불리며 베트남 국민에게 존경받고 있다. 그의 이름을 베트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도시 이름으로 정했을 정도니 그를 향한 베트남인들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호찌민 관광은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이 즐비한 동코이(Dong Khoi) 거리에서 시작된다. 호찌민에서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이곳의 옆굴로 통하는 노트르담 대성당(Notre Dame Cathedral)이다. 프랑스의 지배를 받은 도시가 대부분 그렇듯 호찌민에서도 대성당을 볼 수 있는데, 파리의 그것과 이름이 같다. 1862년부터 1880년에 걸쳐 프랑스 측에서 건축했으며 약 40m가 넘는 두 개의 첨탑과 성당 앞에 우뚝 선 성모 마리아상이 이방인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치와 장미 문양 창 하나하나까지 섬세하게 만든 붉은 벽돌 외관이 눈길을 끄는데, 건축에 사용된 자재는 모두 프랑스에서 직접 공수해왔다. 화려한 신로마네스크 양식의 외관으로 말미암아 호찌민 시민이 즐겨 찾는 유명 웨딩 촬영지이기도 하다. 노트르담 대성당 바로 옆에는 베트남에서 가장 거대한 우체국인 중앙우체국이 자리한다. 에펠탑을 설계한 귀스타브 에펠(Gustave Eiffel)의 결작으로, 프랑스 특유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건물 외관이 웅장하다. 안으로 입장하면 정면에 거대한 호찌민 사진이 걸려 있고, 깊숙한 곳에는 우편 업무를 보는 직원들로 분주하다. 클래식한 아치형 천장에는 호찌민시티의 대형 지도가 붙어 있다.

## 한눈에 보는 근현대 베트남

오페라 하우스로 사용했던 유서 깊은 시민 극장을 뒤로하고 레레이(Le Loi) 거리를 따라 천천히 내려가면 우측에 인민위원회 청사(Toa Nha UBND TP)와 호찌민 동상이 나타난다. 원래 프랑스인을 위한 시설이었지만, 현재는 정부기관으로 사용되는 곳으로 애경 명소로도 유명하다. 아오자이(Ao Dai, 베트남 여성의 주로 입는 전통복)를 입은 모델이 활영하고 있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베트남 독립의 역사적인 장소인 통일궁(Reunification Palace)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넓고 호화롭다. 베트남 정부 대통령의 궁으로 쓰이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공화국 정부가 항복한 곳으로 유명한데, 크고 작은 100여 개의 방과 지하에 자리한 베트남전쟁 당시 작전회의실이 인상적이다. 이곳 관광의 백미는 대통령이 근무했던 사령실이다. 베트남전쟁 당시의 긴박했던 분위기가 그대로 녹아 있어 흥미진진하다.

호찌민 현지인들의 약자지껄한 생활상을 엿보고 싶다면, 레레이 거리 끝에 자리한 벤탄 시장(Cho Ben Tanh)으로 향하자. ‘호찌민의 남대문시장’으로 불리는 곳으로, 전 세계 여행자의 발길을 불러 모은다. 베트남 커피와 화장품, 식료품과 액세서리 등을 파는 상점 4000여 개가 빽빽하게 들어선 실내 도매시장으로 사람 냄새가 가득하다. 굳이 물건을 사지 않아도 구경하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른다.





### 유네스코가 인정한 신비의 숲 깐저

호찌민에서 남동쪽으로 63km 지점에 자리한 깐저(Con Gio)는 호찌민 도심을 가로지르는 사이공 강의 하류가 바다로 이어지는 밀림 지대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해양 유격대 사령부가 주둔했던 곳이기도 한 이곳은 전쟁의 여파로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됐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재생력이 뛰어난 맹그로브 숲은 베트남 정부의 지원으로 예전의 거대한 모습을 되찾았다. 그 노력의 결과로 지난 1999년, 유네스코는 이곳을 세계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고 베트남 최초의 맹그로브 숲으로 인정했다.

맹그로브 나무는 거칠고 험한 지역에 살기로 유명하다. 식물이 생존하기 어렵다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에 뿌리를 내린 것도 신기한데,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로 인정받은 신비한 곳이기도 하다. 맹그로브 숲 일대는 야생동물의 낙원이다. 정글의 새들은 나무에 등지를 틀고, 원숭이와 사슴도 이 숲을 벗 삼아 공존한다. 운이 좋다면 황금박쥐와 같은 희귀 동물도 볼 수 있다. 다양한 생물군이 복잡한 생태계를 형성하기에 흔히 '바다 위의 숲'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곳 일대를 둘러보는 것을 가리켜 흔히 '메콩 텔타 투어'라고 한다. 모터보트를 타고 지류 양쪽으로 구불구불하게 펼쳐진 정글을 구경하면서 인근에 있는 섬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다. 미로와 같은 운하와 정글로 둘러싸인 지류를 관통하고, 원숭이 섬과 양봉 농장, 난초 정원, 코코넛 과자 공장 등을 방문하기도 한다.

경쾌한 모터보트를 타고 좁은 수로를 내달리면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같은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던 울창한 맹그로브의 숲과 마주하게 된다. 믿기 어려울 만큼 감동적인 그 모습은 왜 이곳을 유네스코가 생태보호지역으로 선정했는지 깨닫게 해준다. 당장에라도 악어가 튀어나올 것 같은 높지대 위에 나무로 길을 만든 모습은 아찔하고도 유쾌한 추억을 선사한다. 베트남 전쟁 당시의 사령부 건물을 완벽하게 복원해놓아 볼거리 또한 쏠쏠하다. 작전회의실과 식당, 내무반 등의 모습은 과거 치열했던 베트남 전쟁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깐저 섬의 주인공은 원숭이들이다. 엉덩이가 새빨간 원숭이들이 모여 살아 일명 '원숭이 섬'이라고도 불린다. 전쟁 당시에는 원숭이를 비롯해 악어도 많이 서식했는데, 현재 그 악어들이 다시 사육되고 있다. 또 이곳에 자리한 깐저 리조트는 에코투어의 결정판으로 평가받는다. 바다와 가까워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고 방갈로 스타일의 객실은 매우 조용해서 평온한 휴식을 보장한다. 맹그로브 숲 속에 자리한 자연 친화적인 리조트에서의 휴식은 바쁜 일상에 지친 심신을 말끔히 치유해준다.



# 경주

스탬프 투어

칠없던 시절에 떠난 수학여행은 아쉬운 것 투성이다. 언젠가 다시 가봐야 할 곳으로 점찍어두고 잠시 잊고 있던 경주. 신라 시대 역사 유적지와 세계문화유산 등 경주 여행의 정수만 쑥쑥 뽑아 스탬프를 찍고, 가슴속 추억까지 '꾸욱' 남기고 왔다.



## 경주 스탬프 투어란?

경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명소 15곳을 방문, 스탬프 용지에 도장을 찍어 모으면 하는 새로운 여행이다. 루트는 크게 3가지. 대릉원, 첨성대, 분황사, 경주 동궁과 월지(안압지), 교촌마을, 오릉, 포석정지를 있는 '시내권~남산권'과 경주 무열왕릉, 김유신묘, 양동마을로 이어지는 '서악권~북부권', 경주 원성왕릉, 불국사, 동리·목월문화관, 석굴암, 감은사지로 연결되는 '불국사권~동해권'이다. 코스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집에 스탬프와 용지가 비치돼 있다. 단, 문화해설사가 근무하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사이에 방문해야 한다.



**삼국통일의 주역, 김춘추가 잠든 무열왕릉에서 왕의 숨결을 느끼고, '흥무대왕'이라 불린 김유신 묘에서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천년의 역사를 지나 왕에게 가는 길은 그렇게 비장하고 경건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양동마을에서 조선 500년의 역사 속을 걸어본다.**

경주 무열왕릉 → 김유신 묘 → 양동마을

### 조선 500년, 유서 깊은 양반촌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조선 시대 대표적인 영남 양반촌으로 손꼽히는 양동마을은 2010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비탈진 언덕 위에 한옥과 초가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높은 지대엔 양반이 거주했고, 낮은 곳엔 하인들이 살았다. 경주 손씨와 여강 이씨, 두 가문의 사람들이 대를 이어 살아가는 집성촌, 양동마을에는 두 성씨를 각각 대표하는 가옥, '서백당'과 '무첨당'이 있다. 마을 꼭대기에는 경주 손씨의 종가인 '서백당'이 있고, 마을 중턱에는 조선 시대 성리학자 이언적의 종가인 '무첨당'이 있다. 종종 때 청백리로 널리 알려진 손종돈의 옛집인 관가정에서 바라보는 마을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 마을 초입에 있는 100년 넘은 상점 '양동점방'은 지친 다리를 쉬기에 좋다. 손수 만든 약과와 쌀엿, 식혜, 수정과, 매실차 등 할머니 손맛 가득한 달콤한 주전부리를 파는데, 인스턴트 간식에 비할 바가 아니다. 현재 이곳은 양동마을 토박이 이정생 할머니가 운영 중이다. 양동마을을 여행하기에 앞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마을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이지만, 엄연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라는 점. 일반인에게 개방된 문화재 외에 일반 가옥엔 무단 침입(?)하지 말자.

주소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92 전화 070-7098-3569 운영시간 09:00~19:00 입장료 성인 4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 홈페이지 [yangdong.invil.org](http://yangdong.invil.org)

### 신라 명장의 위엄 김유신 묘

무열왕릉에서 3km 떨어진 곳에 태종무열왕과 처남 매부 사이인 김유신 장군의 무덤이 있다. 송화산 자락에 자리한 김유신 묘는 674년, 문무왕 14년에 축조, 사적 21호로 지정됐다. 왕의 무덤이 아님에도 무열왕릉과 크기가 비슷한 점이 놀랍다. 이유인즉, 사후에 공을 인정받아 '흥무대왕'으로 봉해진 것. 언뜻 보면 왕릉보다 더 화려하다. 국내 최초로 둘레석을 두른 왕릉 형식의 능으로, 자세히 보면 십이지신상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다.

주소 경북 경주시 충효동 산 7-10 전화 054-749-6713 입장료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400원



### 삼국통일의 큰 뜻을 품다 경주 무열왕릉

신라 29대 태종무열왕 김춘추의 능. 진골 출신으로 처음 왕위에 오른 김춘추는 후에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았다. 신라 왕릉 중 드물게 주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능으로, 사적 20호로 지정됐다. 무열왕릉 좌측에는 국보 25호인 '태종무열왕릉비'가 있는데, 비석은 없고 거북 모양의 받침돌과 용을 새긴 머릿돌만 남아 있다.

주소 경북 경주시 능남길 10-4 전화 054-772-4531 운영시간 09:00~18:00 입장료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400원





경주 여행 하면 으레 떠올리는 곳이 불국사와 석굴암이다.  
뛰어난 조형미를 보여주는 불국사와 석굴암, 감은사지를  
지나 자연의 품에 폭 안길 수 있는 너른 바다로 향했다.

불국사 → 동리 · 목월문학관 → 석굴암 → 감은사지 →  
문무대왕릉 → 읍천항



### 불교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석굴 사찰 석굴암

불국사를 찾은 이들 중 십중팔구는 석굴암으로 향한다. 통일신라 혜공왕 10년에 완성된 석굴암은 1962년 국보 제24호로 지정, 1995년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토암산 중턱에 자리한 석굴암은 주차장에 차를 두고, 수풀이 우거진 산길을 따라 굽이굽이 20여 분 올라가야 만날 수 있다. 시원한 감로수 한 모금 마시고 나면 등산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 그러나 현재 내부 공사 중이라 유리관을 뒤집어쓴 부처의 모습으로 만족해야 하는 게 좀 아쉽다.



### 한국문학의 두 거장 동리 · 목월문학관

한국 문단의 양대 산맥, 김동리와 박목월은 경주 출신이면서 문학의 동반자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내부로 들어서면 왼쪽에 ‘동리문학관’, 오른쪽에 ‘목월문학관’이 있다. 김동리 작가의 흉상이 인사를

건네는 동리문학관에는 김동리 작품의 배경이 된 경주와 그의 주옥같은 작품들 중 첫 번째 창작집 <무녀도>의 모형이 전시돼 있다. 입구에 박목월의 대표 시 ‘나그네’의 한 구절이 시선을 끄는 목월문학관은 살아생전 기록한 시낭송 영상과 함께 육성이 흘러나온다. 벽면에는 박목월 시인이 꾹꾹 눌러 써내려간 유플 원고와 필기구, 대학교수로 재직하던 당시에 쓴 강의 노트와 손때 묻은 성경책 등을 만날 수 있다. 말년에 살던 서울 원효로 4가의 아담한 집필실을 그대로 옮겨온 점도 눈길을 끈다.

### 세계문화유산에 오른 통일신라의 걸작품 불국사

통일신라 시대의 기념비적 예술품인 불국사는 대한 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신라 경덕왕 10년, 재상 김대성이 공사를 시작해 774년, 혜공왕 10년에 마침내 완성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의 주둔지로 사용되면서 일본군에 의해 불에 타 대부분 소실됐다. 이후 대웅전 등 일부 건물을 재건했고, 1970년대 대대적인 복원 작업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경내 면적만 해도 11만 7541평. 넓디넓은 불국사를 제대로 보려면, 코스를 잘 짜야 한다. 석가모니불을 모신 대웅전을 시작으로 무설전, 관음전, 비로전, 나한전, 극락전, 불교미술관 순으로 둘러보면 된다. 대웅전 앞뜰에는 섬세함이 돋보이는 국보 제20호 다보탑과 단순함의 극치를 이루는 국보 제21호 석가탑이 나란히 마주 보며 서 있다. 빼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는 두 국보를 비교해봐도 좋을 듯.

주소 경북 경주시 진현동 15 전화 054-746-9913 운영시간 여름 07:00~18:00, 겨울 ~17:30 입장료 성인 4000원, 청소년 3000원, 어린이 2000원 홈페이지 [www.bulguksa.or.kr](http://www.bulguksa.or.kr)





### 통일신라를 느끼다 감은사지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 문무왕은 왜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 동해를 바라보는 곳에 절을 세웠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들 신문왕이 즉위 이듬해에 완공, '선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에서 '감은사(感恩寺)'라고 이름 지었다. 지금은 절터와 삼층석탑 2기만 남아 있다. 절터엔 금당, 회랑, 강당 등 사찰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는데 통일신라의 기품과 당당함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죽어서도 용이 돼 나라를 지키겠다는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부왕이 드나들 수 있도록 금당(金堂) 밑에 공간을 만들었다. 돌을 깎아 만든 13.4m의 장대한 삼층석탑은 통일신라 시대 석탑의 백미로 꼽힌다.

주소 경북 경주시 양북면 웅당리 55-1 전화 054-779-6109 입장료 무료

### 신라 유일의 수중릉 문무대왕릉

경주 시내에서 36km 떨어진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 평범한 동해 바다가 아니다. 바다에 묻혀 왜구를 무찌르고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문무대왕이 잠들어 있는 바다 무덤이다. 해안에서 약 200m 떨어진 바다 위로 야트막하게 솟아 있는 작은 바위섬 '대왕암'은 문무왕의 시신을 화장해 뿐린 곳이다. 문무대왕릉의 영험한 기운을 받기 위해 무속인들이 자주 찾아 기도를 하기도 한다.

주소 경북 경주시 양북면 동해안로 1365-5 전화 054-779-8743~8759 입장료 무료



### 한 편의 동화 같은 벽화마을 읍천항

스탬프 투어 코스는 아니지만, 문무대왕릉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읍천항은 놓치면 안 될 경주의 핫 스폿. 읍천파도소리길의 시작점인 읍천항은 해변을 따라 걸으며 벽화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포물선을 그리듯 포근히 마을을 감싸고 있는 방파제와 두 개의 등대가 한없이 평화로워 보인다. 바다만 바라보던 외딴 어촌 마을이 색색의 물감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잣빛 담벼락마다 정겨운 그림이 그려져 있다. 숨바꼭질하는 아이들 모습을 그린 벽화에 피식 웃음이 터지다가도,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담은 그림을 보면 말없이 향수에 젖어든다. 수십 점의 벽화는 월성원자력 벽화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로 수준이 어느 갤러리 작품 못지않다. 읍천항에서 출렁다리를 건너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코발트블루 빛 바다 위로 육각형의 부채꼴 주상절리가 시원하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 10m가 넘는 정교한 돌기둥이 1.7km에 걸쳐 줄지어 있는데, 국내에서 최초로 발견된 독특한 형태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사례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바다는 가히 환상적이다. 마치 바람에 나부끼는 여인네의 주름치마 같기도 한데, 파도가 주상절리에 부딪혀 하얗게 물보라를 일으키는 광경엔 탄성이 터져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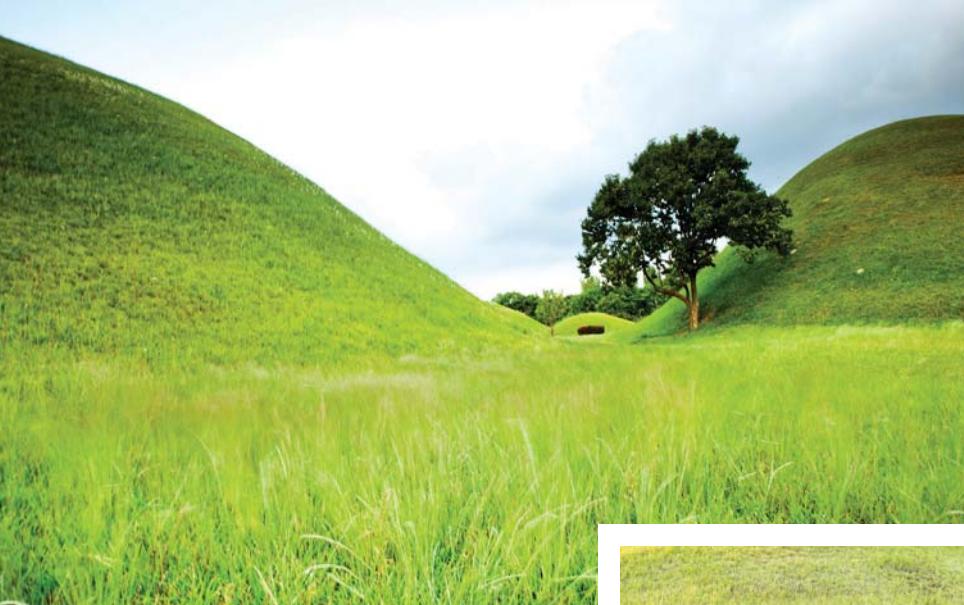
주소 경북 경주시 양남면 읍천리 195-6 주상절리 점등시간 여름 일몰~21:30, 겨울 일몰~20:00





교과서로 달달 외우던 신라 유적지를 두 눈으로 확인할 차례다. 튼튼한 두 다리만 있다면 고떡없다. 대릉원을 시작으로 첨성대, 교촌마을, 안압지 등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시내권과 오릉, 포석정지를 도는 남산권까지. 가슴을 울리는 잔잔한 역사 여행이 시작된다.

대릉원 → 첨성대 → 분황사 → 경주 동궁과 월지(안압지) → 교촌마을 → 오릉 → 포석정지



### 신라 시대 왕들이 잠들다 대릉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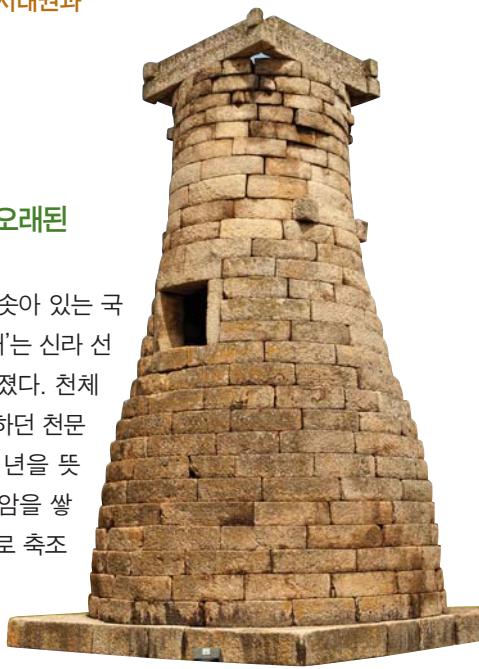
황남대총, 미추왕릉, 천마총 등 거대한 왕릉이 모여 있는 공원. 대릉원 서북쪽에 위치한 '천마총(天馬塚)'은 실제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 경주 여행의 필수 코스다. 20여 기의 크고 작은 능과 연못이 어우러진 대릉원은 경주 사람들의 쉼터로 밤낮 없이 인기가 높다. 신라 22대 지증왕의 능으로 추정되는 천마총은 1973년 발굴 당시, 금관을 비롯해 1만 1526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특히 자작나무 껍질에 하늘을 나는 '천마'를 그린 '천마도'와 '천마총 금관'이 큰 자랑거리다.

주소 경북 경주시 황남동 53 전화 054-779-8795~7 운영시간 09:00~22:00, 연중무휴 입장료 성인 20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 600원



###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첨성대

허허벌판에 우뚝 솟아 있는 국보 제31호 '첨성대'는 신라 선덕여왕 때 만들어졌다. 천체의 움직임을 관측하던 천문대로, 음력으로 1년을 뜻하는 362개 화강암을 쌓아 올려 원통형으로 측조됐다. 첨성대 꼭대기 '정자석(井字石)'에 관측기구



를 설치해 24절기를 별을 통해 측정했는데, 정자석을 동서남북 방위를 가리키는 기준으로 삼았다.

주소 경북 경주시 인왕동 839-1 전화 054-772-5134 운영시간 여름 09:00~22:00, 겨울 09:00~21:00 입장료 무료

### 취영청 신라의 달밤 경주 동궁과 월지

왕자가 머물던 '동궁'과 달빛이 물에 비치는 연못이라는 뜻의 '월지'. 신라 왕궁의 별궁 터로, '임해전지', '안압지'로도 불린다. 〈삼국사기〉를 보면, 문무왕 14년에 연못을 파고 그 가운데 섬과 산을 만들어 꽃과 나무를 심었다고 전해진다. 서태후가 만든 중국의 인공 호수 '이화원'보다 규모는 작지만 시기상으론 훨씬 앞섰다. 이곳은 낮보다 밤에 더 인기가 있다. 아직 해가 지기 전이지만 출사 나온 이들이 연못가에 진을 치고 있다. 임해전 아래 설치된 조명이 불을 밝히는데, 날이 어두어 독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든다. 연못에 비친 임해전 형상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한시도 시선을 뗄 수 없다. 바람이 부는 날이면 연못물이 넘실거려 또렷한 반영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출렁이는 황금빛 물결은 가히 장관을 이룬다.

주소 경북 경주시 인왕동 26-1 전화 054-772-4041 운영시간 09:00~22:00, 연중무휴 입장료 성인 20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 600원

### 구석구석 교촌마을

한옥이 둘러싸고 있는 교촌마을은 15곳의 역사 문화 스템프 투어 중 대표적인 코스다. 300여 년의 역사가 흐르는 최부잣집을 중심으로 신라 시대 최초의 국립대학이라 할 수 있는 ‘경주향교’, 최부잣집의 가양주 ‘교동법주’ 등 경주의 대표 유적지를 모두 걸어서 둘러볼 수 있다.



### 한옥에서 즐기는 전통문화 체험 한국토기

교촌마을에선 한옥 건물마다 국악, 천연 염색, 유리 공예, 도예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월 문을 연 이곳은 토기기능전승



자 류진용 씨와 아들 류국현 계승자가 함께 운영하는 토기 체험 공방. 각종 토기 작품을 전시해놓은 전시장이 눈길을 끈다. 특히 국보 91호 ‘기마인물형토기’와 서수형 토기 등 류진용 전승자가 만든 문화재 재현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창작품과 차 도구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직접 손으로 물레를 돌리고 전통 기법으로 토기를 빚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그리고, 접시 등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 만들기가 대부분. 제작한 토기는 가마에서 구워야 하기 때문에 한 달 후택배로 받을 수 있다.

주소 경북 경주시 교촌길 31-6 전화 054-748-0791 운영시간 09:30~18:00 가격 물레 체험 1만 5000원, 초벌 그림 그리기 1만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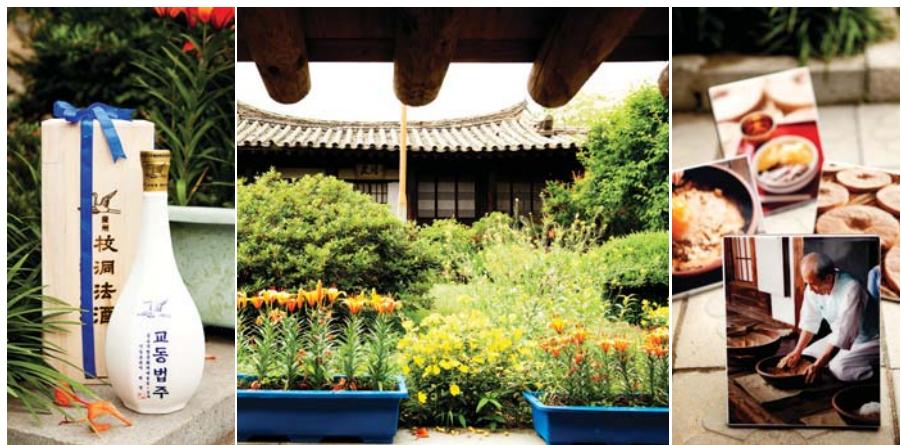


###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최부잣집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명문가 최부잣집 고택. 경주 최씨 종가로 1700년경 건립됐다. 조선 중기 이곳에 정

착한 최씨 집안은 300여 년간, 12대에 걸쳐 부와 명성을 유지하며, 학문에도 힘써 9대에 걸쳐 진사를 배출했다. 팔자 모양의 고풍스러운 ‘솟을대문’과 700~800석의 쌀을 저장하던 ‘곳간’도 예사롭지 않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만 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주변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등 곳간 앞에 적힌 가훈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이 집은 원래 99칸의 큰 규모였으나 사랑채와 별당은 화재로 불타 주춧돌만 남았다. 안쪽에는 독립유공자 최준 선생의 생가도 있다.

주소 경북 경주시 교동 69 운영시간 4월 1일~9월 30일 09:00~18:00, 10월 1일~3월 31일 09:00~17:00



### 최부잣집에 전해 내려온 가양주 교동법주

쿰쿰한 누룩곰팡이 냄새와 꽃향기가 마당에 진동한다. 이곳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교동법주 만드는 곳. 3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교동법주는 궁중에서 유래된 전통 찹쌀 청주로, 최부잣집에서 대대로 빚어온 가양주다. 조선 숙종 때 궁중에서 음식을 관장하던 최국선 씨가 고향에 내려와 처음 빚은 술로, 현재 인간문화재 최경 기능보유자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정성 들여 제조하고 있다. 그는 최국선의 10대손으로, 아들 최홍석 이수자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주원료는 토종 찹쌀과 밀로 만든 누룩. 덧술로 찹쌀밥을 넣는데, 100여 일간 숙성시키면 누룩곰팡이가 피어 술이 된다. 숙성된 술은 맑고 투명한 미황색을 띠며 특유의 향과 부드러운 맛이 난다. 국산 찹쌀과 누룩으로 빚은 교동법주는 소량 생산되고, 유통기한이 30일이다.

주소 경북 경주시 교동 69 전화 054-772-2051 가격 교동법주 종이상자 3만 4000원, 교동법주 나무상자 3만 8000원 홈페이지 www.kyodongbeobju.com

등산객을 유혹하는 세계의 산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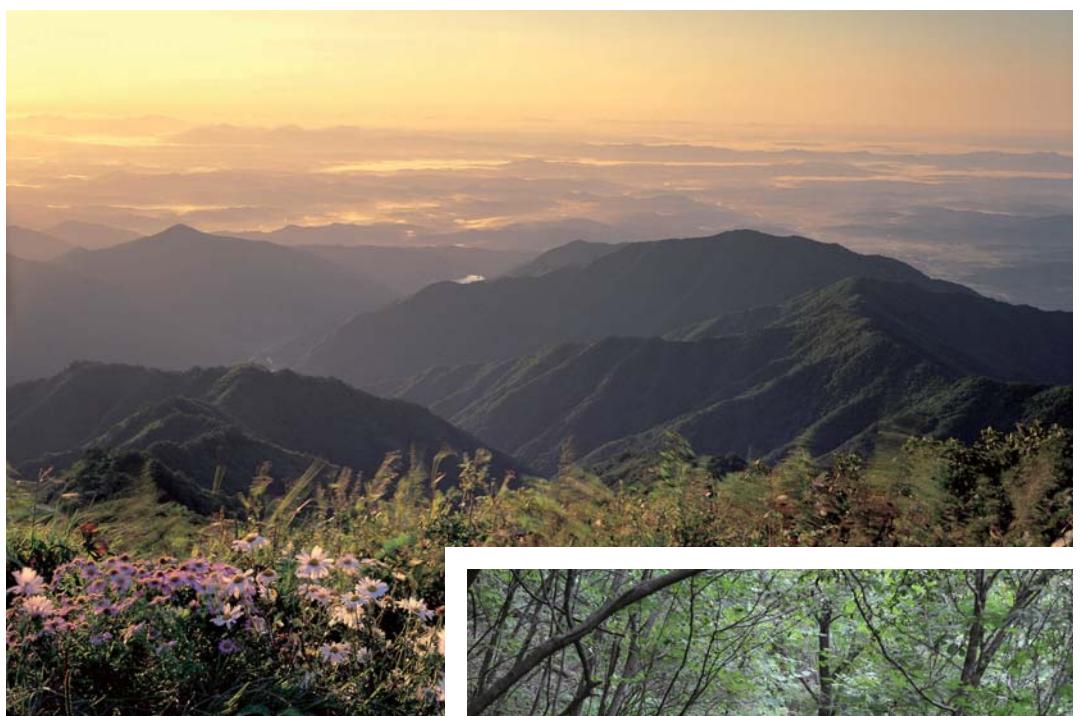
# Best Season for Climbers

청명한 하늘과 상쾌한 공기,  
울긋불긋 단풍까지 등산의  
삼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계절.  
가을이 돌아왔다.  
가을색으로 물든 단풍산과  
높이 4000m의 아찔한  
고산, 태곳적 신비를 간직한  
열대우림 속 울창한 산 등  
세계의 명산을 모았다.

## 봉우리마다 넘치는 기백

### 소백산국립공원 영주, 한국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연결된 한반도의 가장 크고 긴 산줄기 백두대간(白頭大幹). 굽직한 산맥이 태백산을 지나면서 남서쪽으로 뻗어나가 소백산맥(小白山脈)을 형성한다. 소백산맥의 모산인 소백산(小白山)은 우리나라 12대 명산 가운데 하나로 1987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우리말로 '작은 백산'이란 뜻이지만 실제론 만만하게 볼 산이 아니다. 높이 1439m의 비로봉을 제1봉으로 국망봉과 연화봉에서 갈라져 나온 산줄기가 겹겹이 쌓여 웅장한 산세를 이룬다. 완만한 능선이 부드럽게 굽이쳐 여성적인 곡선미가 돋보인다. 연중 절반이 눈으로 뒤덮여 '한국의 알프스'라고도 불린다. 봄이면 울긋불긋한 철쭉군락, 여름엔 울창한 녹음, 가을이면 억새와 단풍, 겨울에는 한 폭의 산수화로 사계절 내내 그림 같은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소백산 등반의 백미는 국망봉, 비로봉, 연화봉을 잇는 대간길. 소백산의 산줄기는 대부분 이 3개의 봉우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원점회귀형 코스보단 들목과 날목을 각각 다른 곳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국망봉(1421m)은 옛 선비들이 시국이 어려울 때마다 한양의 궁궐을 향해 태평을 기원했던 곳. 연화봉(1394m) 아래에 자리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천문대, 소백산천문대도 가볼 만하다.



## 동남아 최고봉에 도전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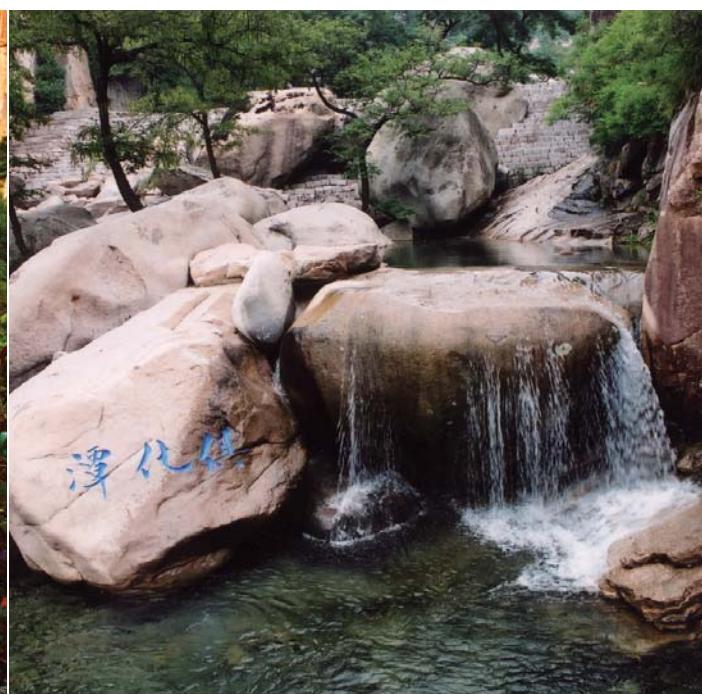
### 키나발루 국립공원 코타키나발루, 말레이시아

해발 약 4100m에 이르는 동남아 최고봉, 키나발루 산은 코타키나발루의 상징. 높이에 따라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해 생태학적으로도 가치가 높다. 세계에서 가장 큰 꽃인 '라플레시아'도 이곳에 서식한다. 2000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다. 거대한 바위산을 오르는 고난도 코스부터 촉촉한 원시림을 거니는 평이한 코스까지 다양한 코스가 마련돼 있어 세계



등반가들에게 인기다. 정상인 로우봉(4095m)까지 가는 코스 곳곳에 가이드 로프가 설치돼 있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거뜬히 오를 수 있다. 단, 방심은 금물. 고산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본격적인 등반은 해발 1564m 지점의 관리사무소에서 시작된다. 해발 2000m 이상 지점부터는 걷는 속도를 늦추고 수시로 물을 마셔야 고산병을 예방할 수 있다. 보통 로우봉까지 편도 10시간이 소요되므로 1박 2일 일정이 적당하다. 라반라타 산장에서 하룻밤 묵고, 로우봉에서 일출을 감상한 뒤 하산하면 적당하다. 산장은 반드시 3~4개월 전 인터넷으로 예약해둘 것. 정상까지 오르지 않더라도 국립공원 입구에서 캐노피 다리까지 약 30~40분 정글 위킹 체험을 할 수 있다.





## 해안에 자리한 중국 최고의 명산 라오산 칭다오, 중국

칭다오 하면 가장 먼저 맥주를 떠올리기 마련.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명한 것이 바로 라오산(崂山)이다. 1만 8000km에 달하는 중국 해안선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으로 중국 최초의 풍경 명승구 중 하나다. 거대한 화강암으로 이뤄진 암산이 산동 해안을 따라 굽이굽이 뻗어 있는 형세. 산 정상으로 갈수록 병풍처럼 둘러선 30여 개의 봉우리가 끝없이 펼쳐져 탄성을 자아낸다. 덕분에 예로부터 '신선이 사는 신비로운 산' 또는 '해상 제일의 명산'으로 불렸다. 누구나 도전해볼 만한 해발 1000m의 봉우리가 많고, 케이블카, 트레일 구간이 잘 정비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고봉은 거봉(1132m)이지만 군사시설로 접근이 제한돼 대신 영기봉(1080m)이 정상 역할을 하고 있다. 이곳에 오르면 멀리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수평선이 시야에 들어오고, 밤하늘엔 자연이 빛은 기암괴석이 펼쳐져 금방이라도 신선이 나타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도교의 유래지인 만큼 2000년 역사가 담긴 태청궁을 비롯해 군데군데 위치한 도교 절과 목조건축물을 보는 것도 재미다. 버스로 천지순화문까지 이동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 이문 부근부터 영기봉까지 걷는 코스를 추천한다. 이문 삼거리에서 시작해 곤문, 태문 등의 팔괘문을 따라 바다를 옆에 두고 한 바퀴 도는 코스는 라오산의 매력을 잘 느낄 수 있다. 팔괘문을 모두 통과하면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 신비로운 태곳적 숲을 거닐다 야쿠시마 가고시마, 일본

가고시마 남쪽 해상에 자리한 야쿠시마(屋久島)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원령공주>의 배경지로 유명하다. 오스미(大隅) 반도에서 약 60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총면적 500km<sup>2</sup>, 규슈의 최고봉인 미야노우라다케(1936m)를 포함해 1800m 이상의 봉우리가 3개나 있어 '바다 위의 알프스'라고 불린다. 숲에 들어서면 빼곡한 진녹색 삼나무와 아열대 특유의 습한 기후에서 자란 무성한 이끼가 마치 태고의 숲에 들어선 기분을 안겨준다. 1993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야쿠시마 등반은 크게 2코스로 나뉜다. 요도가와(淀川) 등산로 입구에서 7.8km 거리에 있는 미야노우라다케 정상을 밟고 돌아오거나, 아라카와(荒川) 등산로 입구에서 10.7km 거리에 있는 7200년 된 삼나무 '조몬스기'를 보고 원점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각각 왕복 9시간 정도 소요된다. 등산이 부담스럽다면 수령 1000년이 넘는 삼나무가 우거진 삼림욕장 '야쿠스기랜드'를 돌아봐도 좋다. 거의 매일 비가 오다시피 하는 지역이므로 비옷과 바닥이 미끄럼지 않은 등산화는 필수다.

## 신이 빚은 산 위의 걸작

### 무등산 국립공원 광주, 한국

해안에서나 볼 수 있는 주상절리가 산 정상에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무등산(無等山)에선 상상이 현실이 된다. 최고봉인 천왕봉(1187m) 양 끝에 서석대와 입석대라 불리는 주상절리가 떡하니 솟아 있다. 주상절리는 4500만~8500만 년 전 화산활동을 거치면서 용암과 화산재가 갑자기 식어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고산지대에서는 이곳이 유일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오랜 세월 침식과 풍화작용에 의해 돌기둥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상절리 바로 밑에 너덜 지형도 형성됐다. 무등산의 또 다른 자랑거리는 여러 줄기로 뻗은 골짜기마다 자리한 계곡. 중심사계곡, 동조골, 큰골, 용추계곡, 곱적골, 원효계곡, 석곡계곡 등 연중 마르지 않는 시원한 물줄기와 암반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뽐낸다. 천년 고찰 중심사와 원효사 등 여러 명승고적도 품고 있다. 가을에는 입석대, 서석대와 더불어 무등산의 3대 석경으로 유명한 규봉암의 단풍과 장불재, 백마능선에 편 역세가 볼만하다. 산 동북쪽에 관광도로가 개설돼 산허리의 원효계곡까지 자동차로 30분쯤 올라, 걸어서 1시간 30분 정도면 정상에 닿을 수 있다. 19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광주시에선 오는 11월 30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와 오후 1시, 2차례에 걸쳐 무등산 국립공원 순환 버스를 운행한다. 광주역을 출발해 호수생태공원, 화순 이서, 중심사 주차장을 거쳐 광주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2시간 30분 소요된다.



## 동아시아의 알프스를 마주하다

### 아리산 사이, 타이완

국토 면적의 70%가량이 산으로 이뤄진 타이완은 등반가의 천국이다. 해발 3000m 이상의 산 200여 개가 무리지어 있어 ‘동아시아의 알프스’로 불린다. 그중 타이완 팔경의 하나인 아리산(阿里山)은 수천 년 동안 형성된 원시림과 대자연의 장엄함을 만끽할 수 있는 곳. 아리산은 타이완 최고봉인 위산(玉山, 3952m)과 나란히 국토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250km 산맥 전체를 일컫는데, 총 18개 봉우리의 평균 고도는 2500m다. 가오슝에선 2시간 거리로 가깝다. 아리산 산림열차는 인도 히말라야

등산 철도, 페루 안데스산 철도와 함께 세계 3대 고산철도로 꼽히는 명물. 해발 30m의 사이 역에서 해발 2216m에 위치한 아리산 역까지 71.9km를 운행한다.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살아 있는 노천 식물원이 따로 없다. 열대, 아열대, 온대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을 차례로 볼 수 있는 것. 아리산 일출은 타이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1000뉴타이완달러 지폐 뒷면에 위산 부근으로 떠오르는 일출 장면이 그려져 있을 정도다. 아리산 역 근처에서 하룻밤 묵고 다음 날 새벽 최고봉인 주산(祝山, 2488m) 전망대에 올라 일출을 보고 내려오는 일정을 추천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천상의 우체국’이라 불리는 아리산 우체국은 아리산 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여러 가지 기념우표와 엽서를 판매하고, 세계 각지로 엽서를 부칠 수도 있다.



Mr. Xu Chuan-sheng, Director General of  
Kaohsiung Tourism Bureau

## 관광 해양의 중심 도시, 가오슝

대만 남서부에 있는 항구도시 가오슝은 대만의 대표적인 무역항이자 관광지로 유명하다. ‘대만의 하와이’로 불리는 가오슝은 연중 온화한 날씨와 다양한 관광지로 전 세계 여행자에게 사랑받고 있다. 가오슝 관광부로 수천성 국장을 만나 대만 제2의 도시, 가오슝의 관광 산업과 새로운 관광 개발 계획, 앞으로의 TPO 활동에 대해 물어봤다.

### 가오슝 시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타이완 남부의 가장 큰 도시 가오슝은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천연자원과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과거 철강과 석유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중공업 도시였지만, 최근 가오슝 시의 노력으로 역사, 문화, 천연자원을 보유한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해양 관광 중심 도시’로 재탄생한 가오슝은 화창하고 상쾌한 도시로, 시민들 역시 다정하고 친절합니다. 가오슝에는 문화 시설을 비롯해 쇼핑몰, 백화점, 공원, 산, 강, 바다, 항구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 가오슝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나요? 여행자에게 추천해주세요.

가오슝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은 아이 허 강(Love River), 연지담의 용호탑(Tiger Tower of Lotus Pond), 불타기념관(Fo Guang Shan Monastery)입니다. 아이히 강은 가오슝 시를 관통하는 강으로, 가장 유명한 여행지입니다. 사랑이라는 뜻

의 ‘아이’에서 알 수 있듯이 낭만적인 분위기의 아이히 강은 산책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음악을 듣는 사람들로 늘 북적입니다. 강기를 산책하는 것뿐 아니라 배를 타고 유람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가오슝 시는 최근 몇 년 동안 환경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소음이 적은 친환경적인 태양광 유람선을 도입했습니다. 용호탑은 연지담을 중심으로 가장 유명한 사원 중 하나입니다. 용의 입이 입구이고, 호랑이 입이 출구입니다. 용의 입으로 들어가서 호랑이 입으로 나오는 것은 불행을 행운으로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남부 지역에 위치한 불타기념관은 대만에서 가장 큰 불교 사원입니다. 사원 건물은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특히 다포(Dafo) 불상이 거대하고 장엄합니다. 불상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480개의 작은 금불상은 숭엄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 가오슝에는 어느 나라 여행자가 많이 찾나요?

중국 관광객 수가 가장 많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13년 기준, 156만 4317명의 중국 여행자가 가오슝을 다녀갔습니다.

### 지난 2013년 가오슝을 방문한 해외여행자는 모두 몇 명인가요? 가오슝 경제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에는 235만 4432명의 여행자가 가오슝을 방문했습니다. 관광산업의 총 생산 가치는 약 405억 1579만 6515신대만달러였습니다(국내 여행자의 생산 가치는 222억 7290만 5200신대만달러, 해외여행자의 생산 가치는 182억 4289만 1315신대만달러). 가오슝 경제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0.967%입니다(가오슝 경제의 총 생산 가치는 4조 1892억 3683만 7000신대만달러. 자료 출처 중화민국 재무부).



가오슝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1년에 300일 이상 날씨가 화창하다는 것이 가오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화창한 날씨는 일본이나 한국 등 북쪽 지역의 여행자에게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겨울에도 온난해 골프나 자전거, 보트 등 야외 활동을 즐기기 좋습니다. 친절한 시민 역시 가오슝의 큰 자산입니다. 가오슝에서 길을 잃는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오슝 시민들이 길을 알려주고, 목적지까지 안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오슝은 언제나 여행자를 환영합니다.

현재 대만 대부분의 도시가 관광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어떻게 가오슝을 알리고 있나요?

가오슝의 관광 목표 시장은 아직 아시아입니다. 중국이나 홍콩,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등 수많은 해외 관광 박람회에 오래전부터 참가해왔습니다. 가오슝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홍보하기 위해 해외 광고도 진행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홍콩 딩딩(트램)에 가오슝 광고를 게재했고, 부산에서도 관광홍보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해외 관광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경로를 찾아낼 것입니다.

가오슝에서 가장 큰 관광 행사는 무엇입니까?

대만에선 매년 3개 도시에서 대규모 축제가 열립니다. 바로 가오슝 등축제와 대만 등축제(매년 다른 도시에서 개최), 타이페이 등축제입니다. 그중 2001년 시작된 '가오슝 등축제'는 아이히 강의 낭만적인 분위기와 다양한 빛과 색이 어우러진 야외 공연으로 유명합니다. 음력 1월 15일경 열리는 가오슝 등축제는 매년 2~3월에 개최됩니다. 강산과 초

산, 포구양 산은 2011년부터 축제에 참여했고, 가오슝 내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오슝 시는 올해 처음 등 행렬을 개최해, 7만 명 이상이 자신이 만든 등을 들고 축제에 참여했습니다. 등 행렬은 가오슝에서 가장 다채롭고 흥겨우며 중요한 축제입니다.

가오슝의 새로운 관광 개발 계획이 있습니까?

가오슝 시는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문화, 창의, 관광, 전시, 기타 산업 발달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200만 신대만달리 규모의 가오슝 신항만 프로젝트가 항만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4개의 주요 건설 프로젝트인 가오슝 전시장, 가오슝 항구 터미널, 해양 문화 및 대중음악 센터, 가오슝 공립 도서관 건설이 추진될 것입니다. 경전철로 이 4개의 랜드마크를 연결, 항만 지역에 효율적인 운송 체계를 구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오슝은 관광지와 휴양 시설이 풍부한 진정한 항만도시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해외여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편리한 교통입니다. 가오슝은 대만 철도와 대만 고속철도, 도시철도, 국제공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오슝 경전철 건설 1단계가 2014년 11월 시험을 거쳐 2015년 개통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대만 최초의 경전철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경전철은 가오슝 대중교통 체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가오슝 관광 시장에서 부상하고 있는 또 다른 요소는 전시 산업입니다. 새로 건축된 가오슝 전시장은 면적 4.5ha, 높이 27m 건물로, 1만 6000장 이상의 유리로 지어졌습니다. 해양 도시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계절풍과 태풍을 이겨낼 정도로 견고한 물결 모양의 지붕이 인상적입니다. 대규모 기계와 요트 전시를 개최할 수 있는 대만 유일의 박람회장으로, 1100개의 전시 부스와 아름다운 해양 경관이 보이는 400개의 야외 전시 부스, 다목적 회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MICE(회의, 포상관광, 총회, 전시) 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발판으로, 가오슝의 새로운 도약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가오슝의 가치는 상승할 것이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고용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가오슝 지역에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생성하고, 약 46억 신대만달리의 순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 신항만 확장과 MICE 산업 발달로, 가오슝 경제가 활성화할 것입니다. 또한 항만을 따라 건설되는 격조 높은 엔터테인먼트 시설인 해양 문화 및 대중음악 센터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면적 11.89ha 규모로, 항만 11-15구역에 건설될 것입니다. 2017년 완공될 이곳은 3500석의 공연실과 1만 2000석의 야외 콘서트장을 갖출 예정입니다.

TPO 기구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활동을 기대하십니까?

TPO 기구는 아시아 태평양 도시의 관광 협력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라고 생각합니다. 연중 수많은 활동과 총회에 참여해 아시아 지역의 최신 관광 및 개발 정보를 공유하고, 다양한 도시의 관광 전략을 배우고 있습니다. TPO 회원 도시가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TPO 기구는 아시아 각 도시의 여행 정보를 'BIG Net'으로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제공, 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도록 돋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 세계에서 아시아 도시의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향후 가오슝을 홍보하고 수많은 국제 관광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TPO 기구와 협력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랑스러운 도시 가오슝의 아름다움에 대해 회원 도시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TPO 기구에 감사 드립니다. 대만에서 가장 먼저 방문해야 하는 가오슝에서 멋진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길 바랍니다.





##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 제6회 TPO포럼 및 실무급 회의 성료

제6회 TPO 포럼 및 실무급 회의(이하 TPO 포럼)가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2년마다 열리는 TPO 포럼은 관광산업의 중요 사안을 논의, 회원 도시 간 관광산업 경영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소통의 장이다. '이슬람 관광시장의 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총 2개의 세부 주제를 갖고 진행됐다. 스리 수트라 여행사(Sri Sutra Travel) CEO인 Dato' Syed Mohd Razif Al Yahya는 '이슬람 관광시장 동향 및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DR. Nirwan Nod(Director for Research & Training Islamic Tourism Centre)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이슬람 관광시장의 잠재적 요인과 회원 도시 이슬람 관광객 유치 방안'을 주제로 갖고 발표했다. 27일 환영 만찬에는 쿠알라룸푸르 시장 Datuk Seri Hj. Ahmad Phesal Bin Hj. Talib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 28일 퍼푸스타칸 도서관(Perpustakaan Kuala Lumpur)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쿠알라룸푸르 시장을 포함한 6개국 16개 도시에서 온 관계자 11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각 회원 도시 대표자들의 '관광축제 사례발표'와 함께 TPO 공동 사업에 대한 실무진 회의도 차례로 진행됐다. 리지신(Li Zhi Xin) TPO 운영위원장은 "TPO 포럼은 국제 관광업계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이자 회원 도시 간 협력을 다지는 기회"이며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 도시들이 많은 것을 얻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7일에는 'TPO 관광교역전(TPO Travel Trade 2014-Malaysia)'이 쿠알라룸푸르 국립도서관에서 열렸다. TPO 회원 도시 관계자들과 17개 말레이시아 대표 여행사 실무진이 참가해 각 회원 도시의 관광 상품을 홍보하고 교역하는 기회로 삼았다.



##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 2014 TPO 베스트 어워드 수상자 발표

지난 6월 28일 쿠알라룸푸르 마제스틱 호텔에서 열린 '제6회 TPO 포럼 및 실무급 회의' 환송 만찬에서 '2014년 TPO 베스트 어워드 수상자(도시)'가 발표됐다. 한국은 총 9개 부문 가운데 베스트 마케팅 캠페인 부문에 창원시, 베스트 퍼스티벌·이벤트 부문에 군산시, 베스트 홍보 캠페인 부문에 고양시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밖에 베스트 인쇄광고 부문에 태이난, 베스트 프로모션 부문에 싸야, 베스트 관광 브로슈어 부문에 정저우, 베스트 웹사이트 부문에 자카르타, 베스트 지역 전문가 부문에 이포가 선정돼 박수갈채를 받았다. 베스트 여행 산업 리더 부문에는 호찌민의 응엔 티 흥 (NGUYEN THI HONG, Member of Ho Chi Minh City Party Committee's Standing Board, Vice Chairperson of Ho Chi Minh City People's Committee), 광저우의 천바이유(Chen Bai Yu, President of GZL International Travel Service Ltd)가 공동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다음번 'TPO 베스트 어워드 수상자(도시)'는 2015년 중국 싸야에서 개최되는 '제7회 TPO 총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 부산, 한국

### 외국인 대학생 대상 K-CLIP 2014 개최

'K-CLIP 2014'가 지난 7월 13일부터 27일까지 15일간 부산국립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TPO 학생여행교환사업(STEP)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를 포함 TPO 회원 도시가 후원했다. 올해에

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21개 도시에서 온 45명의 외국인 대학생이 참가해 장래 한국 관광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다졌다. 이번 주제는 'Let's dive into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ogether!'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언어를 배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학생들은 부산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의 한국어 어학 코스를 마친 후 한지공예, 태권도, 사물놀이, 한복 및 다도 체험 등 한국 역사와 문화, 전통과 현대를 두루 경험하는 특별 강좌에 참여했다. 'Korea Through My Eyes' 프로그램에선 행사 기간 내 부산·대구·울산·경주 등 경상도 지역과 전주·의산·군산 등 전라북도 지역을 관광하며 느낀 점을 PPT와 UCC로 제작·발표했다. TPO 관계자는 "외국인 학생들이 'K-CLIP 2014'를 통해 한국의 대학 생활과 언어, 문화, 관광을 폭넓게 경험하고, 장차 한국 관광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쌓았길 바란다"며 "부산시를 비롯한 TPO 회원 도시 또한 미래 관광 수요를 늘리는 데 좋은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TPO는 2012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광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관광상품기획 경연대회 'Tourism Universiade'를 개최하고 있다. 2012년에는 2개 종목에서 10개국 25개 도시의 100여 명이 참여, 2013년에는 4개 종목, 12개국 35개 도시 140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 군산시·익산시·전주시, 한국

### 중국 광동성 여행사 초청 팜투어 열어

아시아태평양도시관광진흥기구(이하 TPO)가 지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광동성의 여행사와 언론사를 대상으로 전라북도 팜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팜투어는 지난 2월 광저우에서 열린 'TPO Travel Trade 2014-China'에 참가한 전북 지역 회원 도시들의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마련됐다. 전라북도청을 비롯해 군산시와 익산시, 전주시가 공동으로 참여, 세 도시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소개했다. 중국 방문단에는 남부 지역 최대 규모 여행사인 중국구여광동공사(CITS)와 광동성 중국청년여행사(CYTS), 광지여(CGZL), 남호국여여행사(Nanhua Travel) 여행 상품 기획자들과 광저우일보 기자단이 포함됐다. 12일 공동 관광 홍보 설명회를 시작으로 군산, 익산, 전주, 무주, 진안 일대의 주요 관광자원과 숙박지, 식당 등 관광 시설을 돌아보며 관광 상품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했다. 중국 방문단장 중국구여광동공사(CITS)의 아웃바운드 부총경리 텡화덩(Tang Huadeng) 씨는 "전북 지역이 중국에 잘 알려지지 않아 몰랐는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고유의 전통문화 등 우수한 관광 인프라를 지닌 것에 놀랐다"며 "수도권과 차별화한 테마로 대규모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수학여행을 겨냥한 관광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의 공동 협력 사업으로 전라북도 관광 상품 경쟁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며 "해외여행객 유치를 위해 앞으로도 지역 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09 September 2014



한국 부산 | 9월 12일~9월 15일  
제17회 부산국제관광전  
장소 부산 벡스코

매년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여행·관광 박람회. 세계 40여 개국의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축제 기간 최고의 여행 및 관광 전문가들을 만나 긴밀한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다. 지역 및 국제 관광산업을 홍보하는 여행업계 전문가와 여행자에게 최신 여행 이슈를 제공한다. 세계음식페스티벌과 부산광광사진 공모전 시상식, 세계 전통 민속공연 등의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열린다.



중국 칭다오 | 9월  
칭다오 알파카 카니발축제–카툰조각전시  
장소 칭다오 가오고(高古)현 예술광장



일본 후쿠오카 | 9월 12일~9월 21일  
아시아포커스 · 후쿠오카국제영화축제  
장소 캐널시티하카타

알파카 카니발축제 기간 부대행사 중 하나로 어린이 및 학생을 위한 카툰조각전시회가 열린다. 인기 만화 캐릭터인 도라에몽과 아톰, 슈렉 등을 선보이며 여행자의 이목을 끌 예정. 다양한 캐릭터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다. 특히 밤엔 형형색색 현란한 네온사인 불빛 아래 칭다오의 특색 넘치는 먹거리도 맛볼 수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9월 9일~9월 15일  
동방불빛페스티벌  
장소 블라디보스토크 Avangard Stadium

러시아에서 열리는 가장 큰 불빛 축제 중 하나. 올해 3회째지만 전 세계 수천 명의 관람객이 몰려올 정도로 대규모 페스티벌로 거듭났다. 가을밤, 온 도시를 화려한 불빛으로 물들이는 축제에선 다양한 나라의 개성 넘치는 불꽃을 볼 수 있다. 9월 13일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도쿄와 오사카, 서울,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도시들의 갈라 콘서트를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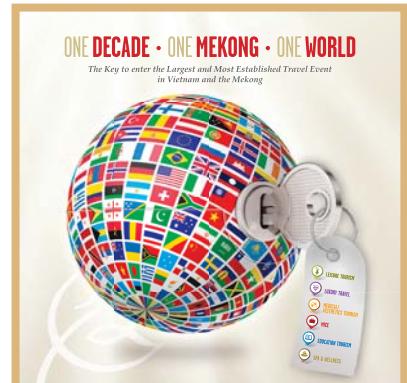
러시아 이르쿠츠크 | 9월 25일~9월 29일  
제12회 바이칼 국제 다큐멘터리 및 대중과학 영화제 '사람과 환경'  
장소 이르쿠츠크 the House of Cinema film screenings

1999년 처음 열린 후 40개국 500여 편 이상의 작품이 참여하는 영화제. 환경 다큐멘터리와 대중과학 영화에 중점을 둔 영화제로 작품을 통해 환경과 생태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지구 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화를 선보이며 인간과 환경 사이 문제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끄는 작품들로 채워진다. 보통 경쟁 부문에 30여 편이 본선에 올라 10여 작품이 상을 수상한다.



베트남 호찌민 | 9월 11일~9월 13일  
2014 베트남 국제여행박람회  
장소 호찌민 SECC

동남아 국가 중 잠재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 여행 박람회. 베트남 관광부와 호찌민시 문화체육관광국이 주최하는 행사다. 33개국의 유관 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2만여 명이 참가하는 박람회다. 메콩 지역의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 나라의 다양한 여행 이벤트를 선보인다. 메콩 강 및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의 국가와 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여행 상품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 10 October 2014

## Festival Calendar

한국 경주 | 10월 초  
한류드림페스티벌  
장소 경주시민운동장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열리는 대규모 한류 페스티벌. 경주시와 경상북도, 한국연예제작자협회 주최, 경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가을 축제로 올해 5회째를 맞아 K-POP 정상급 가수 20여 팀이 출연해 3시간여 동안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국내외 관람객 1만5000여 명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 대한민국 대표 한류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한국 군산 | 10월 3일~10월 5일  
군산시간여행축제  
장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및 구불길 일원

근대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한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올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온다. 10월 1일 군산시민의 날과 연계해 최무선 장군 진포대첩 행사와 연계해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것이다. 또 축제 행사를 도심권까지 확대해 많은 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했다. 올가을, 근대와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군산에서 여행 겸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다.



인도네시아 옥야카르타 | 10월 7일  
족자컬처 카니발  
장소 술탄궁전광장



중국 장가계 | 10월 14일~10월 19일  
2014년 제3회 세계윙슈트다이빙결승전  
장소 천문산

매년 10월 7일 옥야카르타 기념일에 열리는 풍성한 카니발. 옥야카르타는 자바인들의 정신적 고향이며 네덜란드를 상대로 독립전쟁을 할 때 공화국의 수도이기도 했다. 바틱과 금, 은, 세공 등 수공예품 문화도 다양해 화려한 예술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그들의 화려한 축제를 보기 위해 전 세계 여행자들이 해마다 10월이면 술탄궁전광장에 모여든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10월 24일~10월 26일  
사운드 페어  
장소 자카르타 컨벤션센터

인도네시아 자바 섬 북서안에 있는 수도인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 축제로 이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선율로 채워진다. 자바 재즈 등 자바 음악에 흡뻑 취해볼 수 있다. 3일 밤낮 다양한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축제 분위기가 점점 고조될 예정. 콘서트장 옆엔 갤러리가 자리해 음악과 미술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일본 가고시마 | 10월 11일~10월 12일  
긴코만 바닷바람축제  
장소 가고시마 워터프런트파크 등

일본 남규슈에 위치한 가고시마는 작년까지 개최했던 '가고시마 화산 일주 요트레이스' 이벤트를 리뉴얼해 색다른 페스티벌로 거듭나게 할 예정이다. 가고시마의 중요한 관광자원인 긴코 만과 사쿠라지마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워터프런트파크에서 개최된다. 세계 각국의 음식 부스와 전통 춤 공연, 벼룩시장 등이 파크 곳곳에 펼쳐지며 가고시마 수족관 이벤트와 크루즈 이벤트도 즐길 수 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 | 10월 21일~10월 24일  
농업 주간 전시회  
장소 이르쿠츠크 Sibexpocentre



매년 10월에 열리는 농업 박람회. 농업 생산자의 성과를 전시하는 이벤트다.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업그레이드와 첨단 기술, 장비 및 기계류의 도입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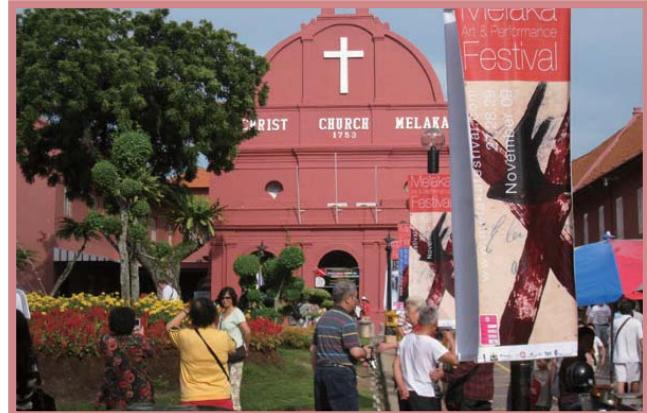
# 11 November 2014

말레이시아 페낭 | 11월 16일

## 페낭대교 국제마라톤

장소 페낭대교

1985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중 하나인 페낭 대교 위를 뛰는 대회로 매혹적인 일출을 볼 수 있는 뷰도 있어 많은 마라토너가 찾고 있다. 13세 이상이 참가할 수 있으며 하프 마라톤, 10km 마라톤 등 다양한 종목이 마련돼 있다. 전문 마라토너뿐 아니라 청소년과 가족들도 함께 참가해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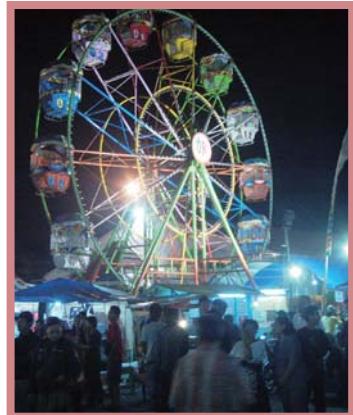


말레이시아 말라카 | 11월 14일

## 제6회 말라카 아트앤퍼포먼스 페스티벌

장소 St Paul's Hill

말레이시아에 있는 항구도시인 말라카에선 가을마다 불거리 풍성한 페스티벌이 열린다. 무용과 공연, 시각예술, 영화, 음악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지는 축제로 전 세계 여행자들이 이 축제를 보기 위해 몰려든다. 세인트폴 교회를 포함해 말라카의 유서 깊은 공간 곳곳에서 감각적인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실험적인 행위예술도 선보이는 축제는 말라카라는 도시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씩 잘 어울린다.



대만 타이난 | 11월 8일~12월 14일

## 제10회 대만 관자령(關子嶺) 온천음악축제

장소 관자령

이탈리아의 시실리, 일본 규슈와 함께 세계 3대 진흙 온천으로 꼽히는 대만 관자령은 이곳에서 온천을 하면 미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지하 400m에서 끌어올린 진흙 온천수는 노곤노곤한 몸을 풀어주기에 그만이다. 축제 때는 다양한 음악이 흘러나와 도시 전체가 생동감이 넘친다.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수화동원(水火同源)의 3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비도 세울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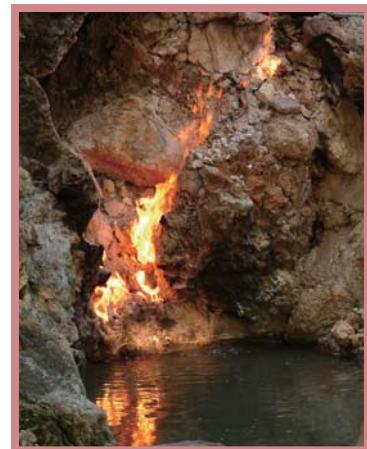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육야카르타 |

11월 28일~2015년 1월 2일

## 뻬사르 말람 뿐리야안 세카텐

장소 술탄 궁정 광장

약 한 달 동안 밤에 광장에서 열리는 바자회. 모든 사람이 번영을 상징하는 쌀과 달걀을 판매하며 밤늦게까지 흥겨운 축제가 이어진다. 축제의 절정은 사원의 수난궁에서 연주되는 두 팀의 가렐란으로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끊임없이 연주되는데 이 소리는 사원 곳곳에 울려 퍼진다. 북쪽 광장에는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가 기다리고 있다.



일본 시모노세키 | 11월 23일

## 제31회 시모노세키 생선축제

장소 시모노세키 어항

아름다운 해안과 신선한 해산물로 유명한 도시 시모노세키의 신선한 생선과 수산 가공품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산 축제가 매년 가을에 성대하게 열린다. 시모노세키 앞바다는 일본 복어의 80%가 잡힐 정도로 해산물이 풍부한 곳이다. 매년 선보이는 슈퍼 점보 복 냄비요리와 고래 냄비요리, 아귀 냄비요리 뿐 아니라 일본 혼슈 도시들의 특산품도 볼 수 있다.

# Festival Calendar

러시아 이르쿠츠크 | 11월 19일~11월 21일

## 제 4회 바이칼 벤처 페어

장소 Baikal shore, Irkutsk

공정한 비즈니스와 유익한 투자와 혁신 및 개발을 목표로 토론을 벌이고 투자의 성공적인 조건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박람회. 다양한 벤처 투자자들과 혁신적인 기업인을 위해 열리며 개인 투자자와 투자 회사, 사회과학 및 지원 기관의 대표자와 러시아 등의 외국 전문가들이 박람회에 참가해 해결책을 제시한다.



일본 시모노세키 | 11월 23일

## 리틀부산페스티벌

장소 코리아타운

시모노세키 역 동쪽 출구에 위치한 코리아타운에서 매년 리틀부산페스티벌이 개최된다. 기존 한국 음식점은 물론 한국 관련 단체들의 음식 부스가 설치돼 다양한 식문화를 즐기기 좋다. 평소 맛 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음식들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장 한편에 있는 무대에선 한국 전통 음악과 춤 등의 공연이 열려 다채로운 한국 문화도 체험할 수 있다.

